

“중부권 회원 대거 참석”

● 원광치대·충동창회

연계 학술대회 성황리 개최

원광치대 동문들의 역량이 결집된 학술대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원광치대(학장 김상철)와 원광치대 충동창회(회장 김상섭)가 공동개최한 '제4차 원광대학교 치과대학·동문 연계 학술대회'가 지난달 24일 대전 대덕컨벤션에서 중부권 및 각 지역 동문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보다 나은 진료를 위하여”를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임플란트 등 소위 인기 연세중심 강연에서 탈피, 보존, 구강외과, 디지털 카메라 등 다양한 연재가 펼쳐져 참석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특히, 이날 강연에서 최기운 경희치대 보존과 교수는 “근관치료의 실패·피해하기”, 권경환 원광치대 구강외과 교수는 ‘개원가에서 발치시 발생할 수 있는 complication’, 양홍석 원장은 ‘전치부 임플란트에서 pink triangle 만들기’, 염문섭 원장은 ‘치과에서의 디지털 카메라의 활용’을 주제로 각각 열강했다.

정경 지난 1355호(4월 25일자) 35면 대한치과이식학회 춘계 학술대회 기사 중 회장 이원철을 양재호 회장으로 정정합니다.



4차 원광대학교 치과대학동문 연계 학술대회에서 원광치대 동문들이 강연에 집중하고 있다.

또 이날 학술대회에는 김상철 학장, 김상섭 동창회장, 기태석 대전 시치과 의사회 회장 등 내외빈과 최근까지 교직에 몸담았던 진태호 원장(전 보철과 교수)과 이도근 원장(전 구강외과 교수) 등 130여명의 동문들이 운집했다.

이번 학술대회를 준비해 온 강성수 원광치대 대전동문회 회장은 “최기운 교수를 비롯, 훌륭한 연자를 모시고 개최한 학술대회 강연은 아주 진지한 분위기 속에 열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특히 논란, 청주 등 중부권의 회원들이 대거 참석, 최근 몇 년간 열렸던 동문학술대회 중 최고 인원인 130여명의 동문들이 함께 해 아주 분위기가 좋았다”고 평가했다.

신영철 총무이사도 “이번 행사를 준비한 원광치대 대전동문회의 경우 총 90여명의 회원 중 74명이 사전등록 후 참석하는 일사 분란한 단결력을 과시했다”고 설명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



정기춘 원장

성공경영 78

Make A High-Performance Dental Team
고 성과의 치과팀을 만들기 위한 전략 (2)

성과의 두 가지 영역(Two Very different important Dimensions)

조직의 성과를 규명할 때 꼭 고려해야 할 두 가지 영역이 있다. 그 두 가지가 바로 효율(Efficiency)과 효과(Effectiveness)이다. 효율과 효과의 정의에 관해서는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고 성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다시 한 번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효율적인 치과를 들여다 보자

효율적인 치과의 목적은 최대 생산성과 수익이다(maximum Productivity and Profitability).

효율에 초점을 맞춘 치과는 투자 대비 수익을 더 늘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치과의 모든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수익에 맞춘다. 가령 더 빨리 환자의 흐름을 만들기 위해 스케줄부터 의사의 진료, 보조자의 진료 보조 부분을 체크하고 개선하고자 한다. 그리고 매출 대비수익을 올리기 위해 치과의 모든 경비를 조절하고 제한하고자 한다.

효율적인 치과는 비즈니스의 가장 기초적인 목적인 ‘이윤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집중한다.

하지만 ‘효율적인 측면만 지나치게 강조하면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발생한다. 치과 운영이 지나치게 효율에 집착하게 되는 경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진료시간을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의사와 환자의 미팅 시간이 줄어든다.

초진 환자의 검사부터 진단에 필요한 정보 수집과정을 치과 직원이 처리하고 의사는 간단한 확인만 하고 치료 동의과정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자 (실제로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하는 치과가 많다). 이러한 경우 생산적인 측면에서는 효율적일 수 있지만 환자 만족의 측면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생기게 마련이다. 치과 진료는 생산 공장의 벨트 컨베이어처럼 똑같은 물건을 생산하고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될 수가 없다. 환자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하고 치료할 의사와 충분한 면담을 통해 관계를 수립한 뒤 치료에 들어가야 최선의 치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효율 일변도의 경영은 자칫 중요한 부분을 간과할 수 있다. 효율 경영을 위해 시간과 비용을 조절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느리게 갈 때 느리게 가는’ 그리고 ‘투자할 곳은 투자하는’ 철학과 원칙이 반드시 필요하겠겠다.

효과적인 경영이란 올바르게 시작하고 지속적으로 지켜 나가는 것

생산성과 수익을 위해서는 효율적인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윤이 없는 비즈니스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Without Profit, Business Does not exist). 바라는 수익을 얻지 못하면 산나는 경영을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더 큰 치과 경영의 목적은 자신의 가치와 철학을 반영하고 내 외부 고객(자신의 팀원과 고객)에게 차별화된 부가가치를 제공하는 차원이 되어야 한다. 결국 어떻게 올바르게 치과를 경영하느냐가 가장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가칭)대한스포츠치의학회 마우스 프로텍터 제작 연수회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과 동시에 스포츠는 국민들에게 매우 가깝게 보급되어 그 인기가 점점 더 상승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치아우식이나 상악악역제되는 경향이 있는 것에 비교하여, 스포츠의 다양화에 따른 스포츠인구의 증가에 의하여 치아과적, 악습관질 등 스포츠 상해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스포츠치의학은 스포츠에 의한 외상과 상해를 예방하고 구강기능을 개선하는 것에 의해 스포츠 퍼포먼스의 향상, 건강유지를 위한 구강관리 등, 여러 면으로 스포츠에 관련된 사들을 도와주는 현재와 미래의 치과의료입니다. 지난 2004년 제1차 마우스 프로텍터 연수회를 성황리에 마치고, 2005년에는 모두 3회의 연수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실습 세미나에서는 자기 자신의 모형이나 환자의 모형을 사용하여 Vacuum former 에 의한 방법과 라미네이트에 의한 방법을 숙지함으로써 곧바로 임상응용이 가능하도록 기획되어 있으며, 2차, 3차 연수회로 나누어 실시될 예정입니다.

※ 장 소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6층 대학원강의실 및 4층 실습실

※ 연 자

최대균 교수, 이성복 교수, 권국록 교수, 김형섭 교수 (경희치대 보철과)

※ 실습진행

정 훈, 김광철, 박영섭, 오상현, 안 용

※ 개인준비물

- 1) 자신의 상악 모형에 교합기에 부착하여 지참함.
- 2) 자신의 상악 모형 1개를 경희치대로 택배 발송함.
- 3) 색연필, 치과용 석고조각도, 에반스 나이프
(학회에서는 각종 소모재료, 연마재료 및 제작기계 등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 인 원

20명 한정

※ 수 강 료

30만원

제 3차 연수회

○ 일시 : 2005년 5월 28일(토) 오후 3시~7시

*입금계좌번호 : 재무이사 (박영섭/ 중소기업은행 206-057951-01-010)

*연 락 처 : 경희치대 보철과 교수 이성복(학술이사), 02-958-9340, 9341

대한스포츠치의학회 학술대회 및 총회

○ 일시: 2005년 7월 2일(토) 오후 1시~6시

○ 장소: 연세치대 강당

(가칭)대한스포츠치의학회 회장 최 대 균

협 찬 : (주)신덴탈